

# 쇠퇴지역 거주민의 공원녹지 환경 이용과 의식

- 전주시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

## Residents' use and awareness for green open space in the deprived area

- focusing on the old downtown area of Jeonju-si -

구 나 은\*  
Gu, Na-Eun

이 연 숙\*\*  
Lee, Yeun-Sook

### Abstract

Our society confronts a new social demand to protect the environmental equity of the people, and the green open space that is a representative public property which takes a very important role for the residents in less privileged urbane area in terms of providing amenity without requiring individual expenses additionall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based on the environmental experiences of the actual residents, excluding the simple physical status, in relation with supplying public property of green open space, and the study put focus on the old downtown area of Jeonju-si which is a test-bed of urbane regeneration planned by the government. Residents in less privileged area evaluate the importance of green environment of park very highly as a factor to enhance their quality of life, but as they do not have well-established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to back up their needs practically, they face difficulties to use such environment and show low level of satisfaction. In particular, as such characteristics appear remarkably among the least privileged urbane people in the less privileged urbane area, their dependence and expectation upon the environment of green open space is very apparent and, therefore, it is urgently needed to improve their environment for public green park area for the less privileged urbane people.

키워드 : 쇠퇴지역, 공원녹지, 공공자원, 환경 행태

Keyword : deprived area, green open space, public resources, environmental behavior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자원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공자원의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공공자원 중에서도, 대표적인 환경 자원인 공원녹지는 별도의 개인적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어메니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더욱 중요한 공공자원으로 작용한다. 또한 공원녹지는 거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가 저소득층 거주지 혹은 쇠퇴지역에서 더욱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이 입증되고 있다(Mitchell et al, 2008; Maas 2009a).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쇠퇴지역에 공원녹지가 불평등하게 공급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외국에서는 일찍부터 이러한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지역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공원녹지 공급과 이용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시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소득 등의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공원녹지 공급의 형평성 문제에 관한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어 온 연구들은 물리적인 공원녹지 현황에 대한 진단의 차원이었으며, 이러한 환경을 실제로 이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환경은 언제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주민들의 실제적인 환경 이용과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의식에 대한 분석은 단순한 물리적 현황 자체를 넘어서서 쇠퇴지역에서의 환경 인프라의 실증적인 문제점을 제시해줄 수 있는 것이다.

\* 주저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naeungu@yonsei.ac.kr)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yeunsooklee@yonsei.ac.kr)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시행하는 09 첨단도시개발사업(과제번호:09도시-B02)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쇠퇴지역 주민들의 공원 녹지 환경에 대한 이용 현황과 이를 통해 이들이 갖게 되는 환경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쇠퇴지역의 공원녹지 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1.2 연구의 범위

####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도시 쇠퇴지역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며, 이에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의 도시재생 R&D 테스트 베드 지역으로 선정된 전주시 구도심 지역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였다. 대상지역은 중앙동, 노송동, 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5개동에 걸쳐있으며 면적은 총 1,739,000m<sup>2</sup>, 세대 수는 6,009세대로 집계되고 있다.



출처: 전주TB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그림 1. 연구 대상지역

#### 2)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 및 대상지역 배경 파악을 위한 문헌연구법과 지역 주민들과의 일대일 설문면접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설문면접 조사를 통한 연구내용으로는 먼저 대상지역 거주민들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공원녹지의 존재 여부와 이용 빈도, 이용 목적 등 이용실태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거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타 환경적 요소에 비교하여 공원녹지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거주민 특성별로 이용실태와 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 2.1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공원녹지의 효과

거주지 주변 녹지의 존재가 주민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입증되면서, 지역별 혹은 소득계층별로 녹지공간의 혜택이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행해졌다.

Mitchell & Popham(2008)은 영국에서 녹지의 분포와 사망률을 비교하여, 녹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사회경제학

적 이유로 인한 건강 불평등 현상이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즉, 이는 저소득층이 겪는 건강 문제가 녹지로 인해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빈곤도가 높을수록 녹지의 건강 불평등 완화 현상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들의 선행연구(2007)에서는 녹지의 비율이 높을수록 건강이 향상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만, 이는 지역의 도시화 정도와 빈곤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연구결과에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교외지역은 녹지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들의 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 녹지 공간의 양뿐 아니라 질이 거주자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녹지와 거주민의 사회적 건강간의 관계를 연구한 Maas(2009b)의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사회경제적 수준별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저소득층 혹은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보다 녹지의 존재로 인한 사회적 접촉의 혜택을 명백하게 높게 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 2.2 공원녹지 공급의 불공평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공원 녹지의 힘이 크지만, 이러한 자원이 이들에게 불평등하게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서구에서는 환경적 형평성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혹은 쇠퇴지역 거주민에게 공원 및 녹지의 공급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해왔다(CABE, 2010; Jennifer W., 2005; Heynen, 2006; Cradock et al, 2005).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이러한 연구가 거의 없었으나, 최근 환경혜택과 불평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제1기 신도시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저소득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공원의 양적 공급 현황에 있어서 저소득지역과 고소득지역 간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나아가 소득수준, 주택유형, 가구주의 교육수준, 통합결핍지수, 도시유형(신도시/구도시/공장인접지역)등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공원의 공급이나 만족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한편, 서현진(2010)은 대구시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수급자비율, 무상주택 비율 등의 지표에 따라 근린공원 접근성의 환경적 부형평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 2.3 대상지역의 이해

#### 1) 도시 형성 과정 특성<sup>1)</sup>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전주시는 통일신라시대, 후백제,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지역의 중심으로서의 성격을 지속하여 온 오랜 역사의 도시이다. 이러한 기존도시<sup>2)</sup>들은 도시화과정에서 도시의 조정 및 신시가지의 확장을 겪게 되는데, 전주시는 일제강점기의 철도부설 등으로

1) 권영상 외, 2008, 한국적 도시설계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pp.74-131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2) 해방이후 한국에서의 도시설계는 크게 두 갈래로, 국가주도의 산업화 및 국토개발과정에서 건설된 신도시에 대한 도시 설계 부분과, 도시화과정에서 진행된 기존도시의 조정 및 신시가지의 확장과 관련된 도시설계로 구분된다. (권영상 외, 2008)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겪었으며, 해방이후 1960년대부터 진행된 시가지 개발로 신시가지가 기존 구시가지 면적의 3배 규모로 확장되어왔다. 그 과정에서 기존 도시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성곽이 있던 자리와 내외부 필지는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도시의 조정과 확장을 겪어 온 기존 도시와 달리, 60년대 이후 국토개발과정에서 개발된 신도시의 경우 근대적인 도시계획이론의 도입으로 근린생활권 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다. 6-70년대 산업화 시대 도시의 대표로 창원시의 경우 강력한 중심축을 선정하여 주요시설을 배치하고 녹지공간을 풍부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8-90년대 도시의 경우 생활권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접근을 통해 각 주거단위와의 보행 네트워크를 연결한 도시 전체의 그린네트워크를 구상하였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분당 신도시 등이 있다.

2) 구도심의 쇠퇴와 지역의 특성

교외화(suburbanization)로 인한 기존 기성시가지의 쇠퇴는 서구와 한국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전주시 구도심도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비롯한 각종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도시외곽에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생활권이 형성되자 중심지였던 구도심 지역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고, 2005년 전북도청이 서부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정주 기반이 침체되며 구도심의 쇠퇴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왔다. 오랜 쇠퇴로 인하여 전주시 구도심은 인구, 경제, 물리 환경 3가지 영역에 걸쳐 활력을 잃고 있는 상태이다.

먼저 인구적 측면으로, 2009년 전주시 총인구는 639,922명으로 연평균 0.3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10년 통계청 조사 결과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이 2.8%로 나타나는 것과 비교하면 담보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대상지역에 속한 5개 동 중 노송동, 진북동, 인후2동의 3개동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최근 5년간 전주시 노인의 전체 인구수는 2.6%의 증가율

을 보이고 있으며 노령화 지수는 2010년 기준으로 52.9%에 달하고 있어 불안정한 인구 상황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5년 동안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대상지역이 속한 5개 동의 수급자 수는 전체인구의 4.9%에 달한다. 경제적 측면으로는, 외곽개발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상권이 구도심 내의 상권을 약화시켜 이 지역의 경제 침체를 가져왔으며, 전주시의 재정자립도 역시 31.6%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성시가지 쇠퇴는 물리적 쇠퇴이라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물리적 쇠퇴는 개별 건축물의 노후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공원녹지, 주차장, 생활편익시설 등의 기반 시설이 매우 미비한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상 구도심지역은 기린대로를 중심으로 동쪽은 대부분 오래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서쪽은 재래시장(중앙상가)이 위치하여 있다. 개발 대상지역이 아니었던 만큼 외곽지역과 비교하여 아파트 단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전반적인 주택지역 낙후는 상당히 심각하며, 특히 1960~70년대 조성된 노송동 일대의 단독주택 밀집 지역(노후주거지구)은 전주시청과 가까운 입지에도 불구하고 마을 입구에 위치한 선미촌의 영향 등으로 주거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1988년 이전 준공된 건물이 81%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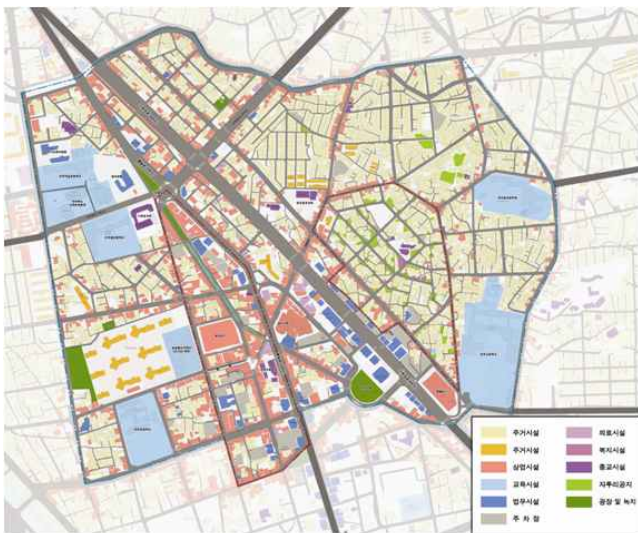
한편, 전주시 구도심은 오랜 역사적 요소들이 중첩된 지역이므로 현재까지 도심 재생의 방향은 기존 도시의 조직을 유지하고 전통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행되어왔다. 이에 따라 영화거리, 걷고 싶은 거리 등 가로공간의 특성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쇠퇴한 구도심 내의 주거지역과 근린생활권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3) 대상지역 공원녹지 현황

전주시는 2011년 기준으로 조성 공원이 151개소(도시자연공원 제외) 392,2997m<sup>2</sup>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공원의 조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의 경우 1인당 조성공원면적(m<sup>2</sup>/인)이 16.06으로 나타나며, 전국 평균도 9.4로 나타내는데 비하여 전주시는 1인당 조성공원면적이 5.67로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법률에서 권고하는 수치인 6(m<sup>2</sup>/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은 전주시 내에서도 쇠퇴한 구도심인 대상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상지역 내의 도시공원은 4개소로, 1인당 조성공원면적이 0.73(m<sup>2</sup>/인)에 그치고 있다. 한편 도시공원 외에 주민 쉼터 혹은 소공원의 역할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공지도 9개 장소에 그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공원녹지의 양적 공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원녹지의 공간적 지원성이 저하되어 있거나 조성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질적인 문제점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설문 면접조사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국토해양부



출처: 건축사사무소 건원, 전주 도시재생 TB 마스터플랜 연구  
그림 2. 대상지역 물리적 현황

VC-10 도시재생사업단 R&D 과제 2핵심 「사회통합적 주거공동체 재생기술 개발」에서 재생사업의 대상지인 전주 시 일부 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이다. 표집방법은 대상지역 전체의 동별 세대수를 파악하고 이에 비례하는 표본 수를 할당하여 총 세대수/할당된 표본수=k의 식으로 k값을 산출한 후, k번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방법은 일대일 면접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조사대상 모집단 목록 확보와 표집추론을 진행하고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미리 교육받은 조사원들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집된 총 1000명의 응답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다. 다음의 <표 1>은 설문조사도구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설문조사도구의 내용

분류		내용
일반 특성	개인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고용상태
	가구	가구 소득, 자동차 소유 여부, 가구 형태
이용 실태		1) 걸어서 접근 가능한 공원녹지 환경 유무 2) 공원녹지 환경 이용 빈도 3) 공원녹지 환경 이용 목적
의식		1) 공원녹지 환경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 (기타 환경 요소로서 동네생활수준, 도로/길, 대중교통, 주차환경, 복지시설, 휴식공간, 자녀 교육환경, 보육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보건 의료시설에 대한 만족도와의 비교) 2) 공원녹지 환경의 상대적 중요도 (기타 환경 요소로서 상업/편의시설, 복지/공공시설, 주택 자체의 중요도와의 비교)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 특성

조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구분에서 남성은 45.8%, 여성은 54.2%로 여성이 약간 더 많았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20-30대가 14.8%, 40대가 22.9%, 50대가 26%, 60대가 19.8%, 70대 이상이 16.5%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11.2%로, 한국인의 25-64세 성인인구 중 대졸이상 인구가 35%인 것을 감안했을 때, 70대 이상의 응답 비율이 16.5%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평균적인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을 알 수 있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30%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이 23.9%로 뒤를 이었으며, 무직·연금생활자가 14.8%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고용상태는 무직(비고용)이 47%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전업주부가 직업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비고용 상태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상시 근로자가 25.5%, 고용주 및 자영업자가 23.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가구 소득은 200만원 미만인 67.8%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통계청의 2010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2인 이상)조사 결과에서 전국 전체가구의 소득 평균이 약 367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에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가구가 57.4%로, 자동차 소유의 비율이 상당히 적다. 주택 유형은 단독 주택이 66.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복합용도 주택이 15.8%로 뒤를 이었으며 아파트 거주자는 7.8%에 그치고 있다.

표 2. 조사 대상자 특성 n=1000

응답자 개인 특성		f	%	
성별	남	458	45.8	
	여	542	54.2	
소계		1000	100.0	
연령	20대	59	5.9	
	30대	89	8.9	
	40대	229	22.9	
	50대	260	26	
	60대	198	19.8	
	70대	133	13.3	
	80대	32	3.2	
소계		1000	100.0	
학력	초졸 이하	216	21.6	
	중졸	184	18.4	
	고졸	488	48.8	
	대졸 이상	112	11.2	
소계		1000	100.0	
직업	자영업	239	23.9	
	영세 자영업	9	0.9	
	사무직, 관리직	77	7.7	
	전문직, 자유업	6	0.6	
	생산직, 기능직	58	5.8	
	서비스직	107	10.7	
	단순 노무직	27	2.7	
	학생	24	2.4	
	공공근로/사회적 일자리	5	0.5	
	전업주부	300	30	
	무직, 연금생활자	148	14.8	
	소계		1000	100.0
	고용상태	상시 근로자	255	25.5
임시·일용 근로자		33	3.3	
고용주 및 자영업자		236	23.6	
무직		470	47	
비정규직		6	0.6	
소계		1000	100.0	
월 가구 소득	85만원 미만	238	23.8	
	85만원 ~ 125만원 미만	117	11.7	
	125만원 ~ 200만원 미만	323	32.3	
	200만원 ~ 300만원 미만	240	24.0	
	300만원 이상	80	8.0	
	무응답	2	0.2	
소계		1000	100.0	
자동차 소유 여부	있다	426	42.6	
	없다	574	57.4	
소계		1000	100.0	
주택유형	단독주택	668	66.8	
	다가구 주택	61	6.1	
	다세대 주택	26	2.6	
	연립주택	4	0.4	
	아파트	78	7.8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 기타(비닐하우스, 쪽방 등)	158 5	15.8 0.5	
소계		1000	100.0	

4.2 공원녹지 환경 이용실태

조사대상자의 현재 공원녹지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거주지에서 걸어서 접근 가능한 공원녹지 존재 여부, 공원녹지 이용 빈도, 공원녹지 이용 목적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공원녹지 이용실태 n=1000

이용실태		f	%
도보접근 공원녹지 존재여부 (n=1000)	있음	345	34.5
	없음	655	65.5
소계		1000	100.0
공원녹지 이용 빈도 (n=345)	매일	5	1.4
	거의 매일	33	9.6
	일주일에 한두번	175	50.7
	이주에 한 번	16	4.6
	한달에 한 번	60	17.4
	계절마다 한 번	36	10.4
	거의 가지 않음	18	5.2
	전혀 가지 않음	2	0.6
소계		345	100.0
공원녹지 이용 목적 (다중 응답) (n=796)	조용히 휴식하기 위해	147	45.2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212	65.2
	운동을 하기 위해	186	57.2
	친구 혹은 이웃을 만나기 위해	136	41.8
	가족과 외출하기 위해	60	18.5
	자녀 혹은 손자를 돌보기 위해	17	5.2
	주변의 자연경관을 즐기기 위해	16	4.9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 위해	5	1.5
	집이 답답하고 지루해서	17	5.2
	소계		796

먼저 걸어서 접근 가능한 공원 및 녹지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가 '없다'는 응답이 65.5%로 2/3 가량을 차지하였는데, 이 같이 높은 수치는 지역사회 내의 부족한 공원녹지 현황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쇠퇴지역은 물리적 낙후로 인하여 공원과 같은 도시 기반시설이 양·질적으로 매우 미비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전주시의 경우 도시 외곽지역은 시가지의 확장과 개발 과정에서 생활권 공원녹지의 양적 공급이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의 대상지인 구도심 지역은 오래된 기존 도시 조직이 유지되면서 일상 생활권 공원녹지의 조성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또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만큼,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제공되는 작은 공원이나 쉼터와 같은 공간도 찾기 어려우므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만한 공원녹지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상지 관련 문헌조사 결과 조성상태가 좋지는 않아도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녹지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사 대상자들이 녹지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났었던 결과로, 도시근린공원의 경우 실제적인 시민의 효율적 이용이나 도시 내에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게 조성되어 도시 전체에 대한 수치로서는 충분한 공원면적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도시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허미선 외, 1996)

걸어서 접근 가능한 공원녹지가 있다고 응답한 34.5%의 조사대상자에게 공원녹지 이용 빈도를 물은 결과, 일주일에 한두 번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50.7%로 절반을 차지하였고, 한 달에 한 번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17.4%, 계절마다 한 번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10.4%로 나타난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응답자가 60%로, 공원녹지의 존재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공원녹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대상자에게 공원녹지 이용의 목적을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가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동을 하기 위해'가 57.2%, '조용히 휴식하기 위해'가 45.2%, '친구 혹은 이웃을 만나기 위해'가 41.8%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녹지 이용실태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별로 교차분석과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표 4>는 조사 대상자 특성별로 접근 가능한 공원녹지 존재 여부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4. 조사 대상자 특성별 접근 가능한 녹지 존재 여부

항목	구분	녹지환경 존재		계 f(%)	X <sup>2</sup>
		유 f(%)	무 f(%)		
성별 (n=1000)	남	169(36.9)	289(63.1)	458(100.0)	2.153 <sup>ns.</sup>
	여	176(32.5)	366(67.5)	542(100.0)	
소계		345(34.5)	655(65.6)	1000(100.0)	
연령 (n=1000)	20~30대	55(37.2)	93(62.8)	148(100.0)	4.136 <sup>ns.</sup>
	40대	73(31.9)	156(68.1)	229(100.0)	
	50대	83(31.9)	177(68.1)	260(100.0)	
	60대	68(34.3)	130(65.7)	198(100.0)	
	70대 이상	66(40.0)	99(60.0)	165(100.0)	
	소계	345(34.5)	655(65.5)	1000(100.0)	
월 가구 소득 (n=998)	85만원 미만	107(45.0)	131(55.0)	238(100.0)	33.413 <sup>***</sup>
	85~125만원	34(29.1)	83(70.9)	117(100.0)	
	125~200만원	127(39.3)	196(60.7)	323(100.0)	
	200~300만원	60(25.0)	180(75.0)	240(100.0)	
	300만원 이상	16(20.0)	64(80.0)	80(100.0)	
	소계	344(34.5)	654(65.5)	998(100.0)	

유의도는 \*p<0.05, \*\*p<0.01, \*\*\*p<0.001로 표시함

성별에 따라 접근 가능한 공원녹지 존재 여부를 다르게 인식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의 접근 가능한 공원녹지가 없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대에 따른 공원녹지 존재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2-30대 젊은 층과 6-70대 노인층에 비하여, 4-50대 장년층의 접근 가능한 녹지 공간이 없다는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구 소득에 따른 공원녹지 존재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소득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에서 소득이 낮고 높음에 따라 녹지 존재의 인지에 대한 확실한 경향성을 띄고 있지는 않으나,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85만원 미만)과 중간집단(125만원~200만원)의 ‘걸어서 접근 가능한 공원녹지가 있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두 집단의 ‘걸어서 접근 가능한 공원녹지가 있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쇠퇴지역 내에서는 다소 소득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충분한 환경적 인프라를 누리고 있지는 못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혹은 비교적 소득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공원녹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5>는 조사 대상자 특성별로 녹지 이용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것으로 이 결과는 걸어서 접근 가능한 녹지공간이 있다고 응답한 345명에 한정된 것이며, 위의 <표 4>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공원녹지 이용 빈도 조사 결과,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볼 수는 없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계절에 한 번 정도 이용하거나 또는 공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여성이 약간 높게 나타나 남성의 공원이용이 좀 더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이용 빈도 분석에서는 60대가 거의 매일 공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일주일에 한두 번 공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7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 높은 연령층이 공원녹지를 좀 더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0대가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가구소득별로 공원녹지 이용 빈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소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공원녹지 이용 빈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85만원 미만)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비율이 74.7%로 나타나는데,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200만원 이상)의 경우 이 비율이 50.0%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하여 동일한 쇠퇴지역 내에 거주할 지라도, 소득이 낮을수록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문제의식과 같은 맥락으로서,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이동성이 저하되어 다른 레저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근거리 공원녹지의 필요성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 대상 지역은 지속적인 도시의 낙후로 인한 취약계층의 밀집으로 지역 내 기초 생활수급자의 비율이 높고, 노령화가 상당히 심각한 인구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들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의 공원녹지 이용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은 공원녹지의 공급과 계획이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4.3 공원녹지환경에 대한 의식

주민들의 공원녹지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주민들이 인지하는 공원녹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공원녹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녹지에 대한 절대적 만족도와 중요도만으로는 조사 대상자의 의식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다른 환경요소에 비교하여 상대적 만족도와 중요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 1) 공원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

공원녹지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상대적인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네 환경을 동네생활수준, 도로/길, 대중교통, 공원/녹지, 주차환경, 복지시설, 휴식공간, 자녀교육환경, 보육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보건의료시설의 12가지 범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의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표 5. 조사 대상자 특성별 녹지 이용 빈도에 관한 교차분석  
① 매일/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한두 번 ③ 한 달에 한두 번 ④ 계절에 한 번/거의 가지 않음

항목	구분	이용 빈도				계 f(%)	X <sup>2</sup>
		① f(%)	② f(%)	③ f(%)	④ f(%)		
성별 (n=345)	남	18(10.7)	91(53.8)	37(21.9)	23(13.6)	169(100.0)	2.082 <sup>n.s.</sup>
	여	20(11.4)	84(47.7)	39(22.2)	33(18.8)	176(100.0)	
소계		38(11.0)	175(50.7)	76(22.0)	56(16.2)	1000(100.0)	
연령 (n=345)	20~30대	3(5.5)	29(52.7)	13(23.6)	10(18.2)	55(100.0)	4.136 <sup>n.s.</sup>
	40대	8(11.0)	28(38.4)	22(30.1)	15(20.5)	73(100.0)	
	50대	6(7.2)	44(53.0)	19(22.9)	14(16.9)	83(100.0)	
	60대	11(16.2)	33(48.5)	13(19.1)	11(16.2)	68(100.0)	
	70대 이상	10(15.2)	41(62.1)	9(13.6)	6(9.1)	66(100.0)	
소계		38(11.0)	175(50.7)	76(22.0)	56(16.2)	345(100.0)	
월 가구 소득 (n=344)	85만원 미만	18(16.8)	62(57.9)	12(11.2)	15(14.0)	107(100.0)	24.591 <sup>**</sup>
	85~125만원	3(8.8)	19(55.9)	8(23.5)	4(11.8)	34(100.0)	
	125~200만원	14(11.0)	58(45.7)	38(29.9)	17(13.4)	127(100.0)	
	200만원 이상	3(3.9)	35(46.1)	18(23.7)	20(26.3)	76(100.0)	
소계		38(11.0)	174(50.6)	76(22.1)	56(16.3)	344(100.0)	

유의도는 \*p<0.05, \*\*p<0.01, \*\*\*p<0.001로 표시함

표 6. 동네 환경에 대한 만족도 n=1000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평균
	f	%	f	%	f	%	f	%	f	%	f	%	f	%	
동네 생활수준	9	0.9	350	35	434	43.4	201	20.1	6	0.6	0	0	1000	100	2.85
도로/길	53	5.3	193	19.3	522	52.2	204	20.4	28	2.8	0	0	1000	100	2.96
대중교통	130	13	248	24.8	388	38.8	190	19	44	4.4	0	0	1000	100	2.77
공원녹지	74	7.4	368	36.8	328	32.8	189	18.9	40	4	1	0.1	1000	100	2.75
주차환경	60	6	378	37.8	357	35.7	162	16.2	31	3.1	12	1.2	1000	100	2.72
복지시설	126	12.6	308	30.8	362	36.2	177	17.7	26	2.6	1	0.1	1000	100	2.67
휴식공간	47	4.7	319	31.9	428	42.8	178	17.8	26	2.6	2	0.2	1000	100	2.82
자녀 교육환경	27	2.7	305	30.5	234	23.4	121	12.1	27	2.7	286	28.6	1000	100	2.74
보육시설	55	5.5	299	29.9	228	22.8	117	11.7	25	2.5	276	27.6	1000	100	2.67
문화시설	97	9.7	319	31.9	402	40.2	156	15.6	18	1.8	8	0.8	1000	100	2.68
체육시설	39	3.9	347	34.7	407	40.7	186	18.6	20	2	1	0.1	1000	100	2.8
보건 의료시설	24	2.4	403	40.3	366	36.6	187	18.7	18	1.8	2	0.2	1000	100	2.77

<표 6>과 같이, 12개 동네환경요소 모두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점 이하로 나타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3개의 항목은 도로/길(2.96), 동네생활수준(2.85), 휴식공간(2.8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2.67 수준으로 나타난 보육시설과 복지시설이다.

대상 지역은 일제 강점기의 철도 부설로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해방 이후 전주역이 이전하고 그 지역이 전주시청으로 변화하였지만 기존 철도노선이 주요 중심 가로로 사용되고 방사형 도로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 도로 교통은 상당히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길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낙후된 구도심 재생에 있어 기존의 역사적인 도시 조직을 유지하려는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으로서의 지원성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복지와 보육 등 기본적인 인프라의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원녹지 환경의 저하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주민들의 공원녹지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76으로 12개 환경 항목 중 6번째로 낮아 중간 수준이지만,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불만족 구간 [매우불만족과 불만족], 보통 구간 [보통], 만족 구간 [만족과 매우 만족]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 비율을 살펴보면, 공원녹지에 대한 불만족 구간의 비율은 44.2%로 보육시설 48.9%, 자녀교육환경 46.5%, 주차환경 44.4%,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불만족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원녹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중간 수준이지만, 이 환경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원녹지 환경 만족도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 대상자의 특성과 녹지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연령, 가구소득과의 상관성 모두에서 유의도를 나타내었다.

표 7. 조사 대상자 특성별 공원녹지에 대한 만족도 n=1000

항목		N	평균	F
성별 (n=1000)	남	458	2.90	16.567***
	여	542	2.64	
	소계	1000	2.76	
연령 (n=1000)	20~30대	148	2.82	3.301*
	40대	229	2.91	
	50대	260	2.75	
	60대	198	2.72	
	70대 이상	165	2.56	
	소계	1000	2.76	
월 가구 소득 (n=998)	85만원 미만	238	2.61	6.108***
	85만원~125만원 미만	117	2.59	
	125만원~200만원 미만	323	2.74	
	200만원~300만원 미만	240	3.05	
	300만원 이상	80	2.68	
	소계	998	2.76	

유의도는 \*p<0.05, \*\*p<0.01, \*\*\*p<0.001로 표시함

<표 7>에서, 성별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만족도 평균이 3점 이하로 보통보다 낮게 나타나며, 여성의 만족도가 2.64, 남성의 만족도가 2.90으로 여성의 불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연령대별 만족도 분석의 결과, 60대 이상이 젊은 층보다 공원녹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앞 절의 이용실태 분석에서 노인층의 공원녹지 이용 빈도가 젊은 층보다 높게 나타났었던 점에 주목하여, 실제로 공원녹지를 많이 이용하는 집단이 공원녹지의 양적, 질적 조성 상태에 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가구 소득별 만족도 분석에서는 소득 200만원~300만원 집단의 만족도가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25~200만원 집단의 만족도가 2.7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85만원 미만 집단과 85만원~125만원 집단의 만족도는 2.6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연령대별 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 소득이 더 높은 집단에 비하여 공원녹지 이용의 빈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즉, 사회적 취약계층일수록 공원녹지 환경에 대한 이용 욕구는 높으나 실제 환경에서 이들의 양적, 질적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결과는 동일 쇠퇴지역 내에서도 소득수준

이 낮은 집단에게 공원녹지의 공급이 더 열악한 것에서 야기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나, 앞 절의 연구 결과에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오히려 접근 가능한 공원녹지가 근처에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 결과는 공간의 유무에 대한 것보다는 질적인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된다.

2) 공원녹지 환경의 중요도

공원녹지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요소를 ‘상업/편익 시설’, ‘공원/녹지 환경’, ‘복지/공공 시설’, ‘주택 자체’의 4가지 범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환경 요소가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전혀 중요하지 않음(1), 중요하지 않음(2), 그저 그림(3), 중요함(4), 매우 중요함(5)’의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표 8>은 평가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8.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 환경의 중요성 n=1000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그저 그림		중요함		매우 중요함		무응답		계	평균	
	f	%	f	%	f	%	f	%	f	%	f	%			
	상업편익 시설	0	0.0	11	1.1	220	22	605	60.5	164	16.4	0			0
공원녹지 환경	0	0.0	15	1.5	153	15.3	472	47.2	360	36	0	0	1000	100	4.18
복지공공 시설	0	0.0	9	0.9	131	13.1	483	48.3	375	37.5	2	0.2	1000	100	4.24
주택자체	0	0.0	5	0.5	176	17.6	501	50.1	317	31.7	1	0.1	1000	100	4.1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 환경의 중요성 분석 결과, 모든 항목이 4점 전후로 나타나 조사 대상자가 대부분의 환경 요소에 대하여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공공시설이 4.24점으로 가장 높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공원/녹지 환경은 4.18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의 만족도 분석 결과에서 복지시설, 보육시설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중요도 분석 결과에서도 복지/공공시설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현재 대상 쇠퇴지역의 복지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상 지역의 상당수 거주자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만큼 복지 환경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공원녹지에 대해 복지/공공시설 다음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본다. 주택 자체보다도 공원녹지 환경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역 근린 환경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상업편익시설을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지역 내의 재래시장(중양상가)이 중심 상권으로서의 활력을 잃음으로 인해 오히려 전반적인 지역의 침체 현상

에 일조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표 9>와 같이 중요도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 대상자의 특성과 공원녹지 중요도의 관계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 조사 대상자 특성별 공원녹지에 대한 중요도 n=1000

항목		N	평균	F값
성별 (n=1000)	남	458	4.16	0.483 <sup>ns.</sup>
	여	542	4.19	
연령 (n=1000)	20~30대	148	4.15	0.318 <sup>ns.</sup>
	40대	229	4.19	
	50대	260	4.18	
	60대	198	4.14	
	70대 이상	165	4.22	
월 가구 소득 (n=998)	85만원 미만	238	4.11	1.536 <sup>ns.</sup>
	85만원~125만원 미만	117	4.12	
	125만원~200만원 미만	323	4.17	
	200만원~300만원 미만	240	4.23	
	300만원 이상	80	4.34	

조사 대상자 특성별로 공원녹지에 대한 중요성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F-test를 통해 검증한 결과, 각 특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성별과 연령, 소득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공원녹지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공원녹지 중요도 평가의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공원녹지의 중요성을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대에 따른 중요도 분석에서는 70대 이상 노인층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앞의 연구결과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듯 노인층의 공원녹지 환경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가구 소득별로 공원녹지 중요도에 대해 평가하는 바를 분석한 결과, 유의적인 값을 가지지는 않지만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공원녹지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제 환경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만족도와는 별개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 공원녹지 환경의 효과와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5.1 연구의 요약

우리 사회가 환경적 형평성 보장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본 연구는 공원녹지라는 공공 자원의 공급에 있어 단순한 물리적 현황 외에 실제 거주민의 환경 경험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쇠퇴지역 거주민의 공원녹지 환경 이용실태 분석 결과, 거주지 근처에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공원녹



지 환경이 없다는 응답이 약 70%로 공원녹지 환경의 열악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도시 조직의 유지로 생활권 공원녹지의 형성이 부족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고령자와 저소득층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공원녹지 이용의 빈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공원녹지의 필요성이 특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둘째, 대상 쇠퇴지역 거주민의 공원녹지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공원녹지 환경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지만, 공원녹지 환경에 대한 불만족의 비율은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 수준일지라도 공원녹지 환경에 대하여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성보다 여성의 불만족의 정도가 높았고, 이용 빈도가 높았던 상대적 저소득 집단과 고연령층일수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들의 공원녹지 이용 욕구는 높으나 실제 환경에서 이들의 양적, 질적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 요소로서의 상대적 중요도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들은 복지/공공시설 다음으로 공원녹지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이는 주택자체나 상업/편익시설보다도 공원녹지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환경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이다.

**5.2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 전주시 구도심 쇠퇴지역 거주민들은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소로서 공원녹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환경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하여 이용이 몹시 어려우며 만족도도 낮게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특성이 쇠퇴지역 내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서 눈에 띄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들의 공원녹지 환경에 대한 의존과 기대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위한 공공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전주시 구도심은 쇠퇴 이후 재생의 과정에서 오랜 역사도시로서 기존의 도시조직이나 경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전통을 이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후한 주거 지역에서 살아가는 거주민들에게 근린생활권 내에 최소한의 복지시설과 여가시설을 제공하려는 노력 역시 배제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공원녹지와 같은 환경 자원은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쇠퇴지역 중 하나의 대상지만을 사례로 다루고 있기는 하나, 한국 쇠퇴 도시의 전형적인 측면들을 지니고 있는 전주시 구도심을 대상으로 하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가 추후 다른 쇠퇴지역의 환경 인프라에 대한 연구에 있어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CABE(2010), Urban green nation. CABE
2. Cradock, A., Kawachi, I. Colditz, G., Hannon, C., Melly, S., Weicha, J., Gortmaker, S. (2005), Playground safety and access in Boston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8, pp 357-363
3. Ellaway, A., Kirk, A., Macintyre, S., Mutrie, N. (2007), Nowhere to pla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tion of outdoor play areas and deprivation in Glasgow. Health & Place 13, pp 557-561
4. Jennifer W., P. Wilson, J. Fehrenbach (2005), Parks and park funding in LA: an equity mapping analysis, Urban Ecology, 26(1) pp 4-35
5. Maas, J., Veheij, R.A., Spreeuwenberg, P. Groenewegen, P.P., Schellevis, G.S (2009a), Morbidity is related to a green living environment.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6. Maas, J., van Dillen, S.M.E, Verheij, R.A., Groenewegen, P.P (2009b), Social Contacts as a possible mechanism behind the relation between green space and health. Health & Place 15(2), pp 586-595
7. Mitchell, R and Popham, F(2007), Greenspace, urbanity and health: relationships in England,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61 pp 681-683
8. Mitchell, R and Popham, F(2008), Effect of exposure to natural environment on health inequalities: an observational population study. The Lancet 372(9650) pp 1655-1660
9. Nik Heynen, Harold A. Perkins, Parama Roy (2006), The political of ecology of uneven urban green space, Urban Affairs Review, 42 pp 3-25
10. 권영상, 엄운진 (2008),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1.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2010), 도시쇠퇴 실태 지표 구축 및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보고서1.
12. 서현진 (2010), 도시근린공원의 접근성에 따른 환경적 형평성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3. 엄상근 (2008), 이용성을 반영한 도시녹지 평가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4. 임유라, 추장민, 신지영, 배현주, 박창석 (2009), 소득계층요인에 따른 자연녹지와 도시공원의 접근성 분석,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44(4), pp 133-146
1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2009), 도시지역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 연구 1-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6. 허미선, 진양교, (1996), GIS를 활용한 서울시 도시근린공원의 접근성 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4(3), pp 42-56

투고(접수)일자: 2011년 11월 1일  
 수정 일자: 2011년 12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2월 6일